

雨森芳洲(1668-1755)の歴史への考え方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의 역사 인식

京都造形芸術大学客員教授

仲尾宏(나카오 히로시)

雨森芳洲は滋賀県長浜市の高月町にその先祖が住んでいたとされている。今その屋敷跡とされている場所には「東アジア交流ハウス雨森芳洲庵」が建てられ、芳洲のあゆんだ生涯をしのぶ遺品が数多く展示されている。

またJR高月駅の近くには「観音の里歴史資料館」があり、ここでは芳洲の残したもとの史料が保存、その一部が展示されている。彼は成人後、儒学者として立派な人になったが、当時の対馬藩に朝鮮関係の仕事を任され、対馬に住んでいた芳洲は朝鮮通信使が来日した時には二度も対馬と江戸を往復してその旅を助けた。それができたのは芳洲は釜山へ行って朝鮮語を学び、のちにはその学習のための教科書も作った。そして難しい外交交渉もでき、朝鮮国の人々にも信頼されて親しい友もできた。この人が生涯を掛けてやりとげた仕事をふりかえって彼が残した考え方を紹介しよう。後輩のために残した言葉の数々である。

その一

まず第一に相手の国の人々の人情、ものの考え方、風俗や嗜好(好み)をよく知り、日本や日本人の考えで相手を判断してはいけないこと。

その二

아메노모리 호슈는 시가현 나가하마시의 다카쓰키초에 그 선조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그의 주택지로 추정되는 장소에는 「동아시아 교류 하우스 아메노모리 호슈 암자」가 건립되어, 호슈가 살아온 생애와 그의 유품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또 JR다카쓰키역의 근처에는 「관음마을역사자료관」이 있고, 여기에는 호슈가 남긴 사료가 보존되어 있고, 그 일부가 전시되고 있다. 그가 성인이 된 후, 유학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쓰시마 번에서 조선과 관련된 일을 맡았으며, 쓰시마 번에서 일할 때 조선통신사가 2회 방문했는데, 통신사의 쓰시마와 에도 왕복 2회를 모두 도왔다. 그렇게 된 것은 호슈는 부산에 가서 조선어를 배우고, 후에는 조선어 학습을 위한 교과서도 만들었다. 그리고 어려운 외교교섭을 할 수 있고, 이후 조선인과 신뢰가 생겨 친한 벗이 되었다. 호슈가 생애를 걸고 달성한 일을 되돌아보고 그가 남긴 사고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후세를 위해 남긴 말이 많이 있다.

먼저 첫째로 상대국 사람들의 인정, 사고 방식, 풍속이나 기호(좋아하는 것)를 잘 알고, 일본이나 일본인의 생각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전쟁은 「폭악」이다.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 모든 일의 교섭은 「성신의 교제」로 해

豊臣秀吉の仕掛けた戦争は「暴悪」であり、そのことの反省が必要であること。

その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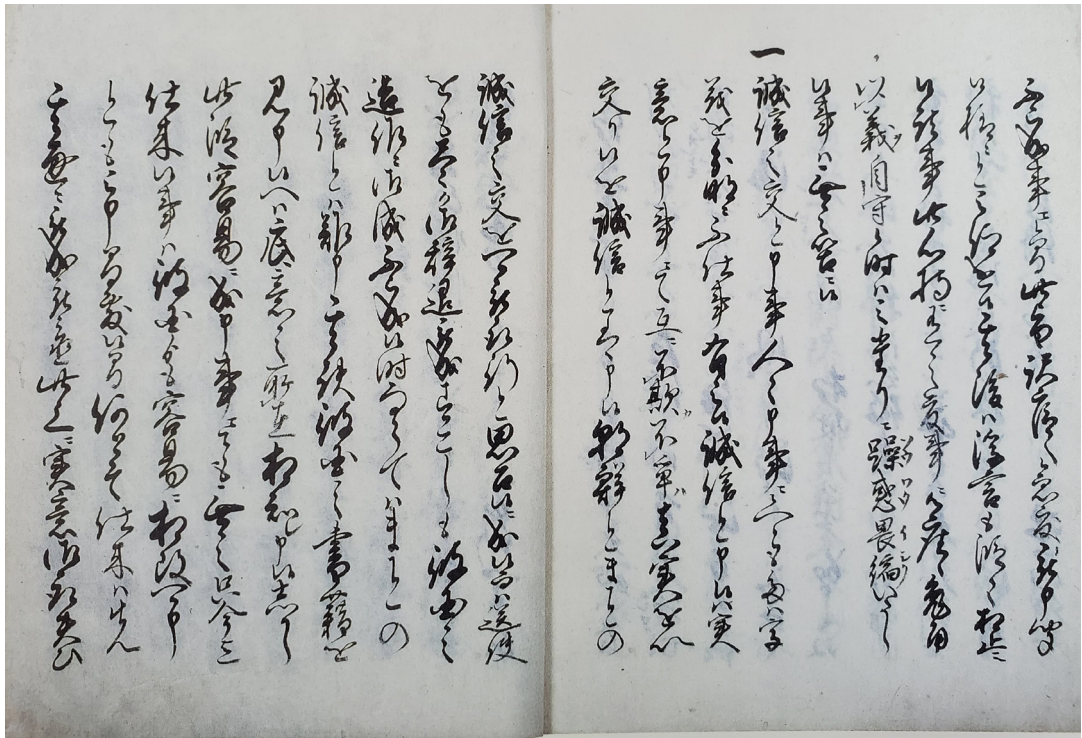
ものごとの交渉には「誠信のまじわり」をすべきであり、その誠信とは「実意」であって、「欺かず、争わず、真実をもって交わること」につきる。

芳洲が朝鮮通信使にかかわる仕事から学んだもっとも大切なことはこの「誠信」という言葉によくあらわされている。

言葉をかえていえば、つねに相手の立場を考えてふたつの国の間にあった歴史や文化の違いによく気付いた上で交わること、という。この言葉の意味することは21世紀の私たちにも通用する考え方であるだろう。

야 한다. 성신 이란 「실의」이며, 「속이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진심으로 교류하는 것」이다. 호슈가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신」이라고 하는 말에 잘 나타나고 있다.

바꿔 말하면, 항상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여 양국간의 역사나 문화의 차이를 잘 알고 난 뒤에 사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21세기의 우리들에게도 통용되는 사고방식일 것이다.



雨森芳洲の「交隣提醒」 1720(享保20年)、滋賀県高月町芳洲会蔵
 아메노모리 호슈의 「교린제성」 1720(교호20년)、시가현 타카츠초호슈회 소장

あとがき・추신

京都造形芸術大学 客員教授

仲尾宏(나카오 히로시)

韓国と日本は狭い所では60キロしか離れていない。だから歴史が始まるはるか以前から人々や動植物が行き来していたし、やがて人々の往来がさかんになるとさまざまな文化がもたら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きには争いもあったが、長い年月をかけて人々はお互いを理解し共存してきた。朝鮮通信使が往来した近世の約200年間はその中でももっとも平和で文化の理解と交流が進んだ時代だった。近代になってから西洋列強の強い影響もあって不幸な関係が続いた一時期もあった。しかし考えてみよう。韓国人と日本人は世界のうちでもっとも理解しやすい間柄であり、もっとも受け入れやすい文化を共有してき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私たちが、朝鮮通信使から学ぶべきことはたくさんあるが、今一度、雨森芳洲の残した言葉とあの時代にあった友好の精神から学びなおしてみよう。

幸い、京都、滋賀、大阪には朝鮮通信使の一行が滞在した場所や書画などの遺品が数多く残っている。本書を手引きにして、それらの場所を直接訪ねてみてほしい。きっとすばらしい発見や感動を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곳은 60km 정도 거리에 있다. 때문에 역사가 시작되는 아득한 이전부터 사람들이나 동식물이 오갔고, 이윽고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해지자 다양한 문화가 전래되게 되었다.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긴 세월이 걸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해 왔다. 조선통신사가 왕래한 근세 약200년간은 그 중에서도 가장 평화스러운 가운데 문화의 이해와 교류가 진행된 시대였다. 근대가 되고 나서 서양 열강의 힘에 의한 영향으로 불행한 관계가 이어진 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한국인과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관계이며,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문화를 공유해 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이, 조선통신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무엇보다 한 번 더 아메노모리 호슈가 남긴 말과 그 시대에 이루어 졌던 선린우호의 정신을 다시 배워 봐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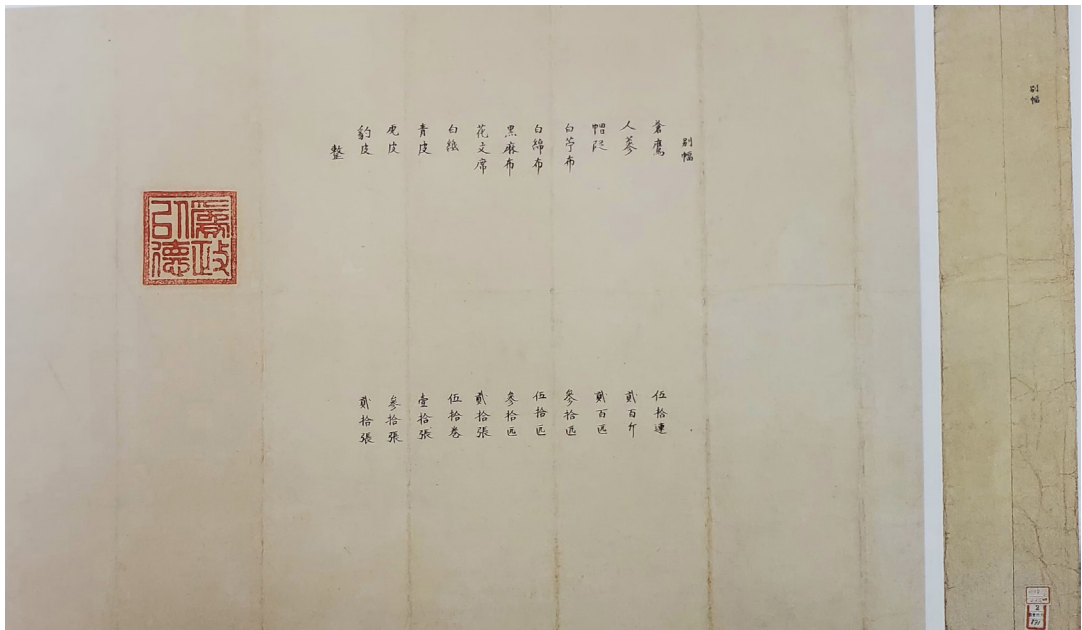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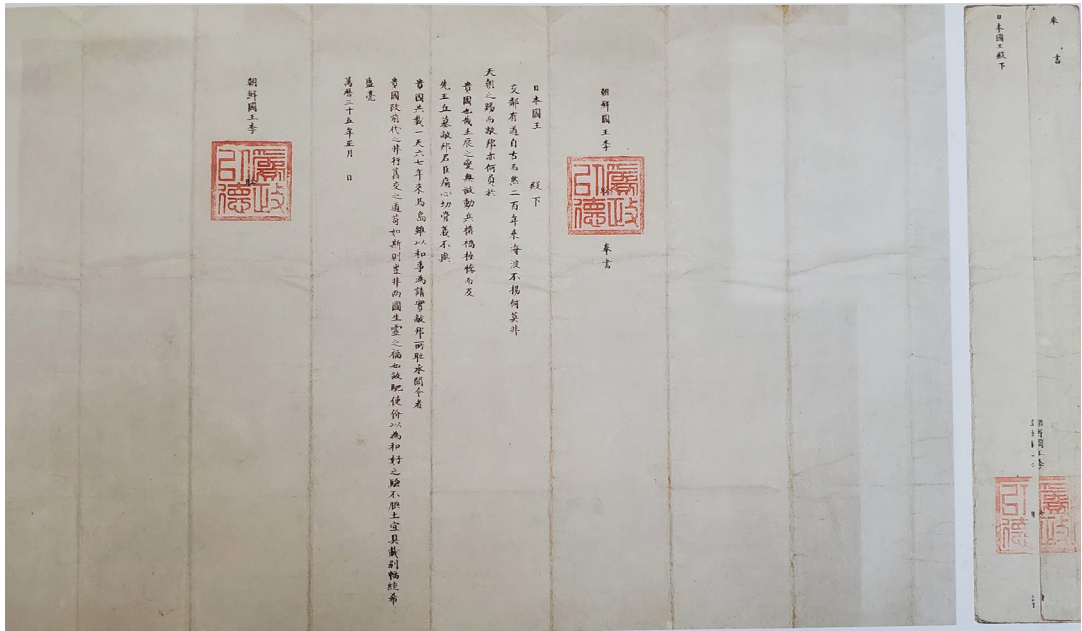
다행히, 교토, 시가, 오사카에는 조선통신사 일행이 체류한 장소나 서화 등의 유품이 많이 남아있다. 본서를 안내로 해서 그것들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보면 좋겠다. 분명 훌륭한 발견이나 감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雨森芳洲画像(滋賀県高月町芳洲会蔵)
아메노모리호슈 화상(시가현타카츠키호슈회 소장)

附錄：朝鮮通信使、その他の遺物 부록：조선통신사, 그 밖의 유물

1. 朝鮮国王李昞国書(京都大学総合博物館蔵) 조선국왕 이연 국서(교토대학종합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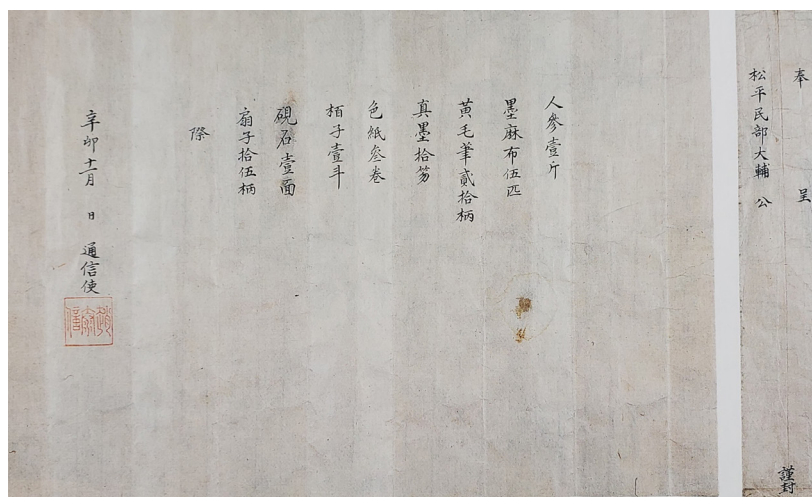
2. 爲政以德(東京国立博物館蔵)・위정이덕(동경국립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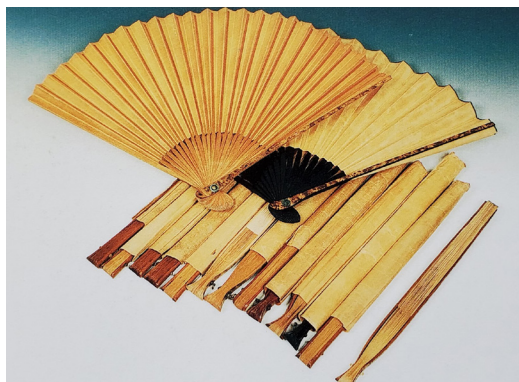
3. 国書函(享保信使記録5冊)・국서함(교호신사기록 5책)



4. 贈答品-正徳元年朝鮮通信使進物並進物目録 · 증답품-정덕원년 조선통신사 선물과 선물 목록



進物目録 · 진상목록



扇子 · 柘子 · 부채 · 잣



硯石 · 黃毛筆 · 眞黑 · 色紙 · 벼루 · 황모필붓 · 먹 · 색

資料 1

ユネスコ「世界の記憶」(世界記憶遺産)(京都、滋賀、大阪関係)

ユネスコは国連がさだめた条約によって世界の関係機関や個人が申請する「文化財」であるが、朝鮮通信使の申請にあたっては日本のNPO法人である朝鮮通信使縁地連絡協議会と韓国の釜山文化財団が共同で申請団体となり、約2年間の審査機関を経て2017年11月1日にその登録が認められた。その全数は111件333点であるが、そのうち、京都府、滋賀県、大阪府関係資料は下のとおりである。

《朝鮮通信使ユネスコ記憶遺産登録申請物件》(京都・滋賀関係分)仲尾宏作成

1 外交記録(3件19点のうち)

- ① 朝鮮国書(李昞書契2通)1607年 対馬藩作成 京大総合博物館 重要文化財
- ② 朝鮮国書(李昞書契1通) 1617年, 対馬藩作成 京大総合博物館 重要文化財

2 旅程の記録(27件69点のうち)

- ① 江州蒲生郡八幡町忽絵図 1700年頃 同町伝兵衛家所蔵 同市指定文化財☆
- ② 朝鮮通信使参着帰路行列図 4件 1711年 (公財)高麗美術館 未指定
- ③ 宗対馬守護行帰路行列図 4件 1711年 (公財)高麗美術館 未指定
- ④ 馬上才図(2代目鳥居清信画) 18世紀 (公財)高麗美術館 未指定
- ⑤ 琵琶湖之図(円山応震画) 1824年 滋賀県立琵琶湖文化館 滋賀県指定
- ⑥ 朝鮮通信使歓待図屏風 2件(狩野益信画)1655年 泉涌寺 京都市指定

3 文化交流関係(18件121点のうち)

- ① 雨森芳洲関係資料36件 1711・1719年 高月町観音の里資料館他 重要文化財
- ② 朝鮮通信使従事官李邦彦詩書 1719年 本願寺八幡別院 近江八幡市指定☆
- ③ 韓客詩章(趙泰億他)4件 1711年 相国寺慈照院 京都市指定

4 朝鮮通信使ユネスコ記憶遺産登録申請物件(大阪関係分)

- ① 正徳度朝鮮通信使行列絵巻 1711年 大阪歴史博物館 未指定
- ② 天和度朝鮮通信使登城行列絵巻 1682年 同上 未指定
- ③ 正徳度朝鮮通信使国書先導船図屏風 1711年 同上 未指定
- ④ 正徳度朝鮮通信使上上官第三船図供船図 1712年 同上 未指定
- ⑤ 朝鮮通信使御楼船図屏風 18世紀 同上 未指定
- ⑥ 朝鮮通信使小童図(英一蝶画) 18世紀 同上 未指定
- ⑦ 釜山浦富士図(狩野典信画) 18世紀 同上 未指定

資料 2

中・高生におすすめの朝鮮通信使関連書籍の紹介

- 『朝鮮通信使-江戸日本の誠信外交』仲尾宏 著(岩波新書 2007年)
- 『図説 朝鮮通信使の旅』辛基秀・仲尾宏 編著(明石書店 2000年)
- 『京都の渡来文化と朝鮮通信使』仲尾宏 著(阿吽社 2019年)
- 『日韓共通歴史教材 朝鮮通信使』日韓共通歴史教材制作チーム(明石書店 2005年)
- 『京都と韓国の交流の歴史』京都韓国教育院
水野直樹・仲尾宏・井上直樹 編著(京都韓国教育院 2015年)
- 『朝鮮通信使と京都』仲尾宏 著(公益財団法人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 2011年)

参考図書・執筆担当

1章(朴慶洙)

- 『朝鮮通信使と彦根』野田浩子著(サンライズ出版、2019年)
『朝鮮通信使をもてなした料理』高正晴子著(明石書店、2010年)
『新版朝鮮通信使往来』辛基秀(明石書店、2002年)
『朝鮮通信使と民画屏風』辛基秀(大阪歴史博物館、2001年)
『朝鮮後期通信使と韓日交流史料展』韓国史学会(三和印刷株式会社、1991年)
『大系朝鮮通信使1巻-8巻』辛基秀、仲尾宏編著(明石書店、1993-6年)
『こころの興隆朝鮮通信使-江戸時代から21世紀へのメッセージ』(2001年4月、京都文化博物館)
『朝鮮通信使絵図集成』辛基秀ほか著(講談社、1985年)
2017年カレンダー、(韓国、国史編纂委員会、2017年)

2章

1. 室津(金英芝)

- 『播磨の朝鮮通信使』室津海駅館・室津民族館専門委員会(たつの市教育委員会、2018年)
『新版朝鮮通信使往来』辛基秀著(明石書店、2002年)
『大系朝鮮通信史』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1993年)
『朝鮮通信使をもてなした料理』高正晴子著(明石書店、2010年)
『図説朝鮮通信使の旅』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2、2000年)

2. 兵庫(金英芝)

- 『播磨の朝鮮通信使』室津海駅館・室津民族館専門委員会(たつの市教育委員会、2018年)
『新版朝鮮通信使往来』辛基秀著(明石書店、2002年)
『大系朝鮮通信史』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1993年)
『図説朝鮮通信使の旅』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2000年)

3. 大阪(金英芝)

- 『新版朝鮮通信使往来』辛基秀著(明石書店、2002年)
『善隣と友好の記録大系朝鮮通信史』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1993年)
『図説朝鮮通信使の旅』辛基秀・仲尾宏編(明石書店、2000年)

4. 枚方(金一恵)

- 『市立枚方宿鍵屋資料館 展示案内』(枚方市教育委員会, 2001年)
『東海道枚方宿と淀川』中島三佳 著(2003年)
『平成24年度枚方宿鍵屋資料館購入の朝鮮通信使関係資料2点』金子真由美・片山正彦
(枚方市史年報第16号 2013年)(枚方市教育委員会文化財課市史資料室)
『朝鮮通信使の淀川通航と枚方』大阪府芥川高等学校 飯沼雅行
(枚方市立枚方宿鍵屋資料館企画展「京街道枚方宿と淀川」関連講座資料, 2016年)

5. 淀(金一恵)

- 「朝鮮通信使と淀・鳥羽」仲尾宏
『講座・人権ゆかりの地をたずねて』世界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2012年, 講演録)
『京都の史料11淀渡辺家所蔵 朝鮮通信使関係文書』京都市歴史資料館
『朝鮮通信使 江戸日本の誠信外交』仲尾宏 著(岩波新書 2007年)

6. 京都・大津(申允珍)

- 『日韓共通歴史教材 朝鮮通信使』日韓共通歴史教材制作チーム(明石書店, 2005年)
『京都と韓国の交流の歴史』京都韓国教育院(京都韓国教育院, 2015年)
『朝鮮通信使の足跡』仲尾宏 著(明石書店, 2011年)
『朝鮮通信使の旅』辛基秀 著(明石書店, 2000年)
『京都の渡来文化と朝鮮通信使』仲尾宏 著(阿吽社, 2019年)
『「鎖国」史観を超えて-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仲尾宏著(明石書店, 2006年)

7. 守山(金太学)

- 『「鎖国」史観を超えて 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仲尾宏 著(明石書店, 2006年)
『朝鮮通信使の足跡-一朝関係史論-』仲尾宏 著(明石書店, 2011年)

8. 近江八幡(金太学)

- 『「鎖国」史観を超えて-朝鮮通信使をよみなおす』仲尾宏 著(明石書店, 2006年)
『21世紀の「朝鮮通信使を歩く」から東京友情ウォーク』(TOKIMEKIパブリッシング 2007年)

9. 彦根(朴慶洙)

- 『朝鮮通信使と彦根』野田浩子 著(サンライズ出版, 2019年)

3章/仲尾宏

이 책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재외한국학교 교수학습교재개발연구비
지원금으로 발행하였습니다.

表紙繪出處(표지그림출처)

1. 前後下 : 洛中洛外圖屏風(守護家本) 낙중낙외도 병풍(슈고케혼)
2. 前上 : 朝鮮人京都往來道筋繪圖(個人藏) 조선인교토 왕래 도로도(개인소장)
3. 後上 : 彦根藩嶺朝鮮人街道修復繪圖(個人藏)히코네번령 조선인가도 수복도(個人藏)

만든 사람들

총괄	교장 박경수
편집·작성	교장 박경수(총괄·히코네) 교감 김영지(효고·오사카) 부장 김일혜(요도·히라카타) 교사 김태학(모리야마·오우미하치만) 교사 신윤진(교토)
감역자	김현 박사(교토산업대학 강사)
특별조언	仲尾 宏(교토조형예술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어교정	교사 김현정
사진	박경수, 김영지, 김일혜, 김태학, 이문호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

발행일	2019년 12월 20일
발행처	교토국제중·고등학교(사회과)
인쇄	선명인쇄